

물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주부의 역할과 사명

김 영 주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장)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이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기에 또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기에 물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하고 지나가기가 일수다.

최근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과도한 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급속히 물 부족상태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TV광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우리나라도 1990년도부터 유엔이 지적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어린아이의 “엄마, 물 실컷 마시고 싶어요”하는 광고문구가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심한 곳은 낙동강 갈수기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물이 부족한데 물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어 결국에는 식수공급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목적은 물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느끼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연 물위기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 우리는 가뭄이 심각하다는 정도는 인지하고 물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런 보도를 접할 때는 예보도 없이 갑자기 비가 내려 우산을 준비못해 비를 맞아야 하는 곤란한

경우에도 불평하기 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한편으로 들곤한다. 그러나 이것도 가뭄이 심해 농사를 짓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농민을 걱정하는 마음정도지 도심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과 밀접하게 생각하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물문제 심각성에 대해 각각의 통계사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물부족국가 세계7위, 물부족국가 90년 UN지정 물값이 OECD국가중 제일 싼 나라
수돗물 소비량 세계 최고수준
(국민소득을 감안한 수돗물소비량 우리나라가 1,000달러당 43.1ℓ, 호주 23.1ℓ, 미국 24.6ℓ, 영국 22.2ℓ, 일본 11.4ℓ, 프랑스 8.3ℓ)

농작물이 4분의1로 줄어들 가능성 기타 등등
우리의 물부족은 국토내 수자원을 확보해 놓기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이에 비해 물소비가 급속히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늦기전에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가정이 모두 물절약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수자원 정책은 댐건설을 중심으로 한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이었다. 그러나 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댐건설과 같은 방식으로만으로도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물을 물쓰듯’ 하는 낭비하는 의식을 고쳐 한정된 물을 아끼고 함께 나누어 쓰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물은 사용해야 하지만 그동안 수자원은 석유자원이나 식량자원과는 달리 쓰고 나면 다시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무심히 낭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생활에서 현재 너무 많은 물이 사용도 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버려지는 물을 방지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낭비되는 물을 살펴보면 실로 많은 물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설거지를 할 때, 물을 틀어놓으면 받아놓고 하면 20l 면 충분한 설거지물을 6배에 해당하는 120l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8l 면 충분한 수세식변기의 소변용물도 12l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가정의 물사용은 과용을 넘어 낭비의 수준인 것이다.

물론 비단, 가정에서 뿐만은 아니다. 공공의식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내 것은 아껴도 남의 것은 함부로 하는 성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정과 기업에서 실천하여야 할 물절약은 다음과 같다 실천 수칙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실천정도를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고 생활속에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 ① 양치질할 때는 물컵을 사용한다.
- ② 목욕, 샤워시 비누칠하는 동안은 수도꼭지를 잠근다.
- ③ 샤워하고 난 물을 받아 에벌빨래 또는 청소용으로 활용한다.
- ④ 세탁시 빨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 ⑤ 화장실 변기통에 절수기를 설치해 사용한다.
- ⑥ 식기나 음식그릇에 묻은 기름기는 휴지로 닦아낸 다음 씻는다.
- ⑦ 세수할 때 세면대에 70%정도만 물을 받아 사용한다.
- ⑧ 세차시 물통에 물을 받아 사용한다.
- ⑨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준다.

- ⑩ 음식찌꺼기는 개수대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기업에서는

- ① 사무실내 변기에 담배꽂초나 이물질 넣지않기 운동을 실시한다.
- ② 절약형 샤워꼭지나 유량 조절기를 설치한다.
- ③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한다.
- ④ 보도를 청소할때는 호스를 이용한 물청소 대신에 빗물을 쓴다.
- 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민간부담으로 절수기를 설치토록 추진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 ⑥ 중수도 시설을 확대 보급한다.
 - 중수도란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공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이는 도심에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1백곳에 중수도시설이 보급, 하루 60만톤의 물을 재활용 한다.
- ⑦ '1기업 1하천 살리기' 를 실천한다.
 - 주부들이 실천할 수 있는 물절약방안과 함께 물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물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물이 모자라서 우리집에 단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통보가 온다면 이미 너무 늦어버리게 되어 노력을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물부족은 농사를 지어야만하는 농민의 일이거나 먼 섬마을 이야기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안이한 생각인 것 같다.

국민적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댐건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댐의 건설을 최소화하고 물절약운동의 실천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절약운동은 의식개혁

이고, 생활습관 및 인식을 바꾸는 운동으로 전환되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소 몇 개는 건설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둘째, 절수기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절수기가 어떤건지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고 답을 하는 주부는 많지 않다.

본적이 없다고 한다. 학교에서 무료양변기 보급신청을 받아 집을 방문해보니 이미 보급을 받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흔히 손씻을 때를 생각해 보자. 수도물을 틀어놓고 비누칠을 하는 동안 물을 잠그고 하는지, 틀어놓고 하는지, 아마도 잠그고 다시 트는 경우가 우리의 흔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도 가보면 센서가 아니라 수동으로라도 수도꼭지가 3초에서 5초정도 간격으로 끊겨 다시 눌러야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물이 나오다가 끊겨버려 3-4회는 다시 눌러야 비누질이 지워지니 지쳐서도 그만 사용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생각에 이해가 안가기도 했으나 반복하여 경험하다보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물을 절약할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다.

화장지도 두마디씩 자동절단되도록 되어 있어 절약을 실천하는 생활습관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왜 안되고 있는가? 절수기 등 물을 절약하는 시설의 보급이 더딘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식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술적, 제도적 지원인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 공공시설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내 것은 아껴도 남의 것은 덜 아끼게 된다. 신축건물들을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자랑들이다. 지자체 청사들도 신축한 건물들이 많다. 그러나 절수기는 보이지 않는다.

공공의 장소가 교육장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법으로 규제하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개인적인 시민의 참여의식으로 가정에서의 자율점검 활동의 활성화이다.

흔히 물값이 너무 싸서 물을 물쓰듯이 사용한다고 한다.

다세대 가정에서는 어차피 사람숫자대로 수도요금을 내는데 나만 절약한다고 되는일도 아닌데 신경쓸 필요 없다고 한다.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하여 준다면, 절수기를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수도요금이 비싸 어쩔수 없이 절약할 수밖에 없다면, 댐건설로 물수급정책을 유지해왔던 과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부에서는 물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노후관정비, 중수도설치, 절수기보급 등 제도적,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그간의 물공급정책이 댐건설위주의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으므로 시민생활에까지 물절약인식이 자리잡기에는 시간적 인식이 부족했으리라고 본다.

물을 절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평소 물의 소중함을 인식(90.3%)하고 있고, 물부족현상이 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인식도(80.1%)는 높은 것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각자의 자율점검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을 생활화 할 때이다.

개인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가정에서 실천될 때 학교에서, 사회에서 공공시설이용시 저절로 절약실천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회 70개 전국조직의 30만 주부회원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물절약운동과 물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